



특별기고

전쟁과 헌법 _ 이노우에 히사시



특 집 전쟁과 헌법

이노우에 히사시(井上 ひさし)

* 이 글은 2008년 10월 1일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가 주최한 기획특별강연회에서 이노우에 히사시가 '평화헌법과 시민사회'라는 제목으로 행한 강연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다. 이노우에 히사시는 오에 겐자부로와 함께 현대 일본문학계의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로, 현재 희곡, 소설, 에세이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약하면서 폭넓은 독자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현대 일본의 정치적 쟁점들에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지식인으로 도 잘 알려져 있으며, 현재 일본의 호헌파 지식인 및 문화인들이 일본국헌법 9조의 개정 반대 결성한 '9조회'의 발기인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 글은 '일본비평, 청간호 게재에 맞춰 이노우에 히사시가 직접 수정·가필한 것을 한국어로 옮긴 것이다. 아울러 본문의 모든 주석은 옮긴이가 삽입한 것이다.



한국에 올 수 없었던 이유

저는 어릴 적부터 한반도나 중국에는 발을 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한창 전쟁 중이었습니다. 일본의 젊은 남자들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렇게 되자 일본 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대일본제국정부는 조선의 젊은 사람들을 일본으로 끌고 와 공장이나 탄광 등에서 가혹한 노동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제2차 세계대전은 대일본제국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여러 가지 통계가 있지만, 그날 일본에 있었던 조선 사람들은 적어도 250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 중에는 물론 스스로 일본에 건너온 분들도 계셨지만, 60%는 일본의 기업이나 정부에 의해서 강제로 일본에 끌려와 가혹한 노동에 종사했습니다. 그런 현실을 보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저는 일본인의 자손으로서 한국과 중국에 죄송스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다른 나라에는 갈 수 있지만 중국과 한국에는 발을 들일 수 없다, 나에게서 그런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일본의 작가 중에 김석범(金石範)¹⁾이라는 인기도 높고 유명한 소설가가 계시는데 언젠가 그 분과 대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은 저에게 “이노우에 씨, 당신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부디 당신 같은 일본인도 있다는 것을 한국에 가서 알렸으면 합니다. 일본인 중에서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서, 오만한 일본인도 있지만 마음이 여린 일본인도 있으며, 그 중에는 36년간의 식민지시대 동안 조선 사람들이 일본에서 얼마나 괴로운 생활을 보냈는지 알기 때문에 한국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일본인도 있다는 것을 당신이 가서 한국 사람들에게 직접 알려주고 오세요”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회가 되어서 한국에 오게 된 것일 뿐, 특별히 좋은 사람인 척하려는 뜻은 없습니다.

1945년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져 조선에서 끌려온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해 8월 6일 일본으로 끌려와 히로시마의 미쓰비시(三菱)조선소에서 일하고 있던 3만여 명의 조선 사람들도 피폭을 당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만세! 잘 됐다!”라고 말한 아시아인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일본인은 역사의 심판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오늘 제가 여기에 서게 된 것은 제가 왜 지금까지 한국에 오지 못했으며 또한 일본에는 한국에 오고 싶지만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부터 오늘의 제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20세기 전쟁의 실태(實態)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1차 세계대전은 1918년에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피해는 사람들이 모두 경악할

1) 김석범(1925~). 재일조선인 소설가. 본명은 신양근(愼陽根). ‘제주 4·3사건’을 다룬 대표작 『화산도(火山島)』를 1976년 문예춘추사가 발행하는 문예지 『문학계』에 처음 연재한 이래, 1995년 원고지 3만 매 분량의 대하소설로 탈고하였다.

만큼 큰 것이었습니다. 두 번 다시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세계의 여론에 의해 ‘국제연맹’이 설립됩니다. 그것은 현재의 ‘국제연합’의 전신(前身)에 해당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전체 사망자 중 95%가 군인이었고, 5%가 일반시민이었습니다. 그런 결과를 두고 ‘전쟁이 나면 시민이 죽는다!’고 하여 세계여론이 떠들썩했습니다.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전체 사망자 중 군인이 52%, 일반 시민 비율이 48%까지 늘어났습니다. 즉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군인과 일반시민의 사망자 비율이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국제연합의 통계입니다.

한국전쟁의 경우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전체 사망자 중 군인이 16%, 일반시민이 84%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전쟁에서는 사망자 중에 군인보다 일반시민의 사망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것이 전쟁의 실태입니다. 베트남전쟁에서는 군인 사망자의 비율이 5%입니다. 즉 전체 사망자 중 군인이 5%, 일반시민이 95%였습니다. 이처럼 베트남전쟁에서는 전쟁 때문에 사망한 사람의 95%가 군인이 아닌 일반시민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 가까워질수록 전쟁이 군인이 아닌 일반시민의 희생으로 치러진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전쟁은 높은 사람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쟁에서 죽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고 싶다, 오늘과 내일은 이어져 있어 어떻게든 사이 좋게 살고 싶다’는 바람을 가진 보통 사람들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라크전쟁에 관해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 통계는 올해 7월 WHO의 발표에 따른 것입니다. 이라크전쟁에서 미국이 사용한 비용은 5천억 달러입니다. 5천억 달러. 굉장한 액수입니다. 한편 미군 측 사망자는 4천 명이고 이라크인 사망자는 15만 명입니다. WHO 발표 통계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한 영국의 잡지가 이라크인 사망자 15만 명이라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란셋』(*The Lancet*)²⁾이라는 의학전문주간지입니다. 노벨의학상에

2) 영국외과학회 발행. 1823년 10월에 처음 발행되어 현재까지 18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의학저널.

근접한 논문이 실리는 탓에 세계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의학 잡지입니다. 그 『랜셋』 지가 독자적인 방법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실제 사망자는 WHO의 발표보다 5배 가까이 많은 70만 명, 그리고 부상자는 방금 말씀드린 숫자의 약 10배입니다. 이것이 전쟁의 현실입니다. 또 이라크의 인구가 2,500만인데 그 중 400만 명이 국외로 피난을 갔습니다. 이것이 전쟁의 실상입니다. 전쟁을 시작한 사람들은 죽지 않고, 자신은 전쟁과는 관련이 없다고 믿고 살아온 보통사람들이 죽고, 부상당하며, 국외로 피난을 가야 하는 것, 이것이 전쟁의 실태인 것입니다.

포츠담선언과 일본의 패망

근대 일본은 아시아에서 자신이 가장 위대하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일본이 아시아에서 최초로 헌법을 만들고 근대정치를 시작했으며 산업을 부흥시킨 점은 잘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근대 일본은 오만해져서 아시아 사람들에게 재난을 몰고오게 됩니다. 참고로 이것은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교과서에도 실린 숫자인데요,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아시아에서 1,550만 명의 사망자를 낳았습니다. 내역을 보면 1,000만 명이 중국인이고 550만 명이 기타 아시아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조선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대일본제국은 실로 엄청난 일을 저질렀습니다.

1945년 7월 26일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 영국의 처칠 수상, 중국의 장제스 총통 등 연합국 대표가 베를린 교외의 포츠담에 모였습니다.³⁾ 소련의 스탈린 공산당 서기장은 사정이 있어 출석하지 못했지만, 참전과 함께 8월 8일 이 회담의 선언에 서명했습니다. 이 회담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즉 전쟁을 그만두고 싶다면 다음의 조건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일본에게 제시하기 위해 소집된 회의였습니다. 그때 나온 항복조건이 ‘포츠담선언’입니다. 포츠담선언에 포함된 항복의 조건은 13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연합국이란 국제연맹에 남은 국가들입니다. 일본도 독일도 이탈리아

도 국제연맹에서 탈퇴했습니다. 국제연맹을 탈퇴한 국가들, 이른바 추축국(樞軸國, Axis Powers)이 탈퇴하지 않은 국제연맹군과 싸운 것이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일본은 1932년 지금의 중국 동북부에 만주국이라는 국가를 세웠는데 이 만주국이 국제연맹 총회에서는 국가로서 승인받지 못하자(반대 42개국, 찬성 1개국) 이에 불만을 품고 국제연맹을 탈퇴했습니다. 나치독일도 그 이듬해에 탈퇴했습니다. 이탈리아도 에티오피아를 침략하여 국제연맹의 비판을 받고 탈퇴했습니다. 이렇게 탈퇴한 국가들이 모인 것이 추축국입니다.

이들에 대해 “그것은 규칙위반이다”라고 하면서 국제연맹에 남은 국가들이 연합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은 연합국에게 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연합국이 최후에 남은 일본에 대해 전쟁을 그만두고 싶다면 다음의 조건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때 제시된 그 13개의 조건, 이것이 ‘포츠담선언’입니다.

13개의 항목 중 7개가 전쟁범죄인은 처벌하며, 패전 후 일본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본인이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 있지만 오늘 제 이야기와 관련된 것은 다음의 2가지 조건입니다.

‘전쟁범죄인은 엄중히 처벌한다’(제10항)⁴⁾, ‘일본국민은 자유로운 의사표명을 통해 평화적이며 책임 있는 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제12항)⁵⁾

3) 실제 포츠담선언의 성립 경위는 다음과 같다. 포츠담선언이 발표된 7월 26일 서명에 직접 참여한 것은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뿐이었다. 포츠담에서의 회의는 7월 17일부터 8월 1일까지의 일정으로 열렸는데 회담에 출석한 처칠이 본국에서의 총선거 패배로 급거 귀국하고, 장제스 총통도 참석하지 못한 탓에 실제로는 트루먼이 자신을 포함한 3인의 서명을 모두 행함으로써 포츠담선언이 성립하게 되었다. 다만 트루먼은 장제스와 무선으로 연락을 취해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련은 8월 8일 대일참전과 동시에 선언에 참여했다.

4) 제10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We do not intend that the Japanese shall be enslaved as a race or destroyed as a nation, but stern justice shall be meted out to all war criminals, including those who have visited cruelties upon our prisoners. The Japanese Government shall remove all obstacles to the revival and strengthening of democratic tendencies among the Japanese people. Freedom of speech, of religion, and of thought, as well as respect for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shall be established.”

5) 제12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occupying forces of the Allies shall be withdrawn from Japan as soon as these objectives have been accomplished and there has been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freely expressed will of the Japanese people a peacefully inclined and responsible government.”

그런데 그때까지 일본을 움직여 온 이들은 천황제를 남겨 두려 했습니다. 전전(戰前)의 대일본제국헌법이 조선 사람들에게 적용된 것은 1944년입니다. 일본인이라면 헌법의 적용을 받아 마땅한데, 일본정부는 조선 사람들을 일본인이라 부르면서도 그때까지 헌법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거듭되는 패전으로 전황이 악화되고 급기야 조선 사람들마저 전쟁에 내보내지 않으면 정말 패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자, 일본 지배자들은 비로소 대만이나 조선 출신 사람들에게도 헌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다음 해 파멸을 맞게 됩니다.

일본국헌법과 상징천황제

패전 이전의 헌법, 즉 메이지시대에 만들어진 대일본제국헌법에서 주권자는 천황 한 명입니다. 현재의 일본국헌법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권자로 되어 있지만, 전전의 대일본제국헌법에서 주권자는 단 한 명, 천황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전쟁범죄인을 논한다면 단 한 명의 주권자인 천황도 포함되어야 마땅했지만, 구세력, 즉 전쟁을 시작한 전쟁주도자들과 다수의 국민은 천황제를 온존시키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대일본제국헌법을 조금만 고쳐 이것으로 전후 일본의 기본틀로 삼으려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시데하라 기주로(幣原喜重郎)⁶⁾ 내각 안에 설치된 ‘헌법문제조사위원회’(憲法問題調査委員會)⁷⁾는 위원장인 마쓰모토 조지(松本潔治)⁸⁾ 국무대신의 이름을 따서 일명 ‘마쓰모토위원회’(松本委員會)라 불렀는데, 이 위원회가 은밀히 대일본제국헌법의 수정에 착수했습니다.

그 사이 일본 국내에서는 많은 헌법초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수는 150여

6) 시데하라 기주로(1872~1951). 일본의 외교관이자 정치인. 1945년 10월 9일부터 1946년 5월 22일까지 일본의 제4대 총리대신을 역임했다. 하마구치 오사치(浜口雄幸) 내각(1929년 7월~1930년 11월)에서 외무대신을 역임하면서 부전조약의 성립에 관여하였다.

7) 시데하라 내각에서 헌법개정을 위한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설치한 위원회. 설치 기간은 1945년 10월 27일부터 1946년 2월 2일까지. 당초 학문적인 조사 및 연구가 주요 임무로서 헌법개정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점차 GHQ와 의회 그리고 여론의 움직임을 의식하면서 헌법개정안의 마련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다.

개에 달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전전(戰前)에서 전쟁을 거치면서, 조금씩 세계 각국의 헌법을 연구하여, 전후 일본의 방향은 일본국민이 정한다는 것을 포츠담선언을 통해 알게 된 젊은 학자들이 만든 훌륭한 초안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은 천황제의 온존을 노리고 있었던 정부 내의 ‘마쓰모토시안’을 대서특필하여 보도해 버립니다. 여기까지가 제1단계입니다. 즉, 낡은 사람들에 의한 낡은 헌법개정안이 국민의 눈앞에 드러나자 국내가 온통 떠들썩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제연맹을 멋대로 탈퇴하고 독일, 이탈리아와 함께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그리고 포츠담선언이라는 국제조약을 받아들인 나라가 이렇게 구태의연한 헌법개정안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세계가 알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연합국총사령관인 맥아더 원수였습니다.

당시 미국의 여론조사에서 천황은 사형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80%를 넘었습니다. 호주나 필리핀에서도 천황사형론은 확고했습니다. 중화민국의 여론도 여기에 가까웠습니다.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는 국민의 손으로 처형되었고 나치독일의 히틀러는 자살했습니다. 그런데 천황제 전체주의였던 일본만이 새로 태어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맥아더는 ‘이대로라면 천황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맥아더는 천황이라는 제왕을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 마쓰모토시안에 대해 ‘일본국민 사이에서 민주주의적 경향의 부활(포츠담선언 제10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대로라면 포츠담선언 위반이 된다’고 생각한 맥아더는 낡은 마쓰모토위원회나 구 지도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포츠담선언을 수락한 이상, 이 선언에 성의를 표하는 새로운 헌법을 정하지 않으면 일본은 전세계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이며 나아가 그 비난은 유일한 주권자였

8) 마쓰모토 조지(1877~1954). 상법학자·관료. 농상공부참사관을 거쳐 1903년부터 도쿄제국대학교 교수 역임. 1919년 이후 남만주철도주식회사 이사, 부사장을 거쳐, 1923년 법제국장관, 1934년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내각에서 상공대신 역임. 패전 후 시데하라 내각에서 국무대신으로 헌법문제를 담당, 천황대권 유지를 골자로 하는 헌법초안을 작성했다.

던 천황에까지 미칠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일본은 무기를 버리고 두 번 다시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해야 하며 그 맹세를 온 세계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

이렇게 맥아더는 마쓰모토시안을 거부하면서 ‘헌법개정의 필수요건’이라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그 요건이란 한마디로 말해 전쟁을 포기하고 화족(華族)·귀족(貴族)제도를 폐지한다면, 천황이 나라의 원수(the head of the state)라는 것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이 넓은 사람들에게 맡겨서는 일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맥아더는 총사령부 내의 민정국에 시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때 민정국원들이 참고로 한 것은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 대헌장), 미국의 독립선언, 프랑스의 인권선언, 국제연합헌장,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시 일본의 젊은 연구자들이 작성한 헌법시안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일본인 중에도 지금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헌법과 유사한 것을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의 지도자들은 거래를 했습니다. 천황제를 남기기 위해 전쟁을 포기하며, 두 번 다시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즉, 일본은 무기를 버리고 맨몸이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절대로 무력으로 다른 나라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을 것이며, 천황도 상징성만 남기고 무력화시킬 테니 그 대신 존속을 보장해 달라는 거래를 통해 지금과 같은 헌법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무기를 버린다, 전쟁을 하지 않겠다. 이 두 가지는 아시아 사람들에게 그리고 온 세계 사람들에게 일본이 맹세한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면서 무기를 가지지 않겠다, 무기로 다른 나라들에게 폐를 끼치거나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증거로 무기를 버리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천황제라는 제도만큼은 살려 달라. 그런 사정으로 천황제는 오직 상징, 더 이상 정치와 관계없는 국민통합의 상징이라는 형태로 현재 우리 헌법 속에 남게 된 것입니다.

일본국헌법과 부전조약(不戰條約)

일본국헌법의 전문(前文)과 제9조에는 파리부전조약이 질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부전조약에 관해서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것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0년이 지난 1928년, 프랑스 외상인 브리앙(Aristide Briand)이 미국의 켈로그(Frank Billings Kellogg)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간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브리앙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준 덕분에 대전은 그후 수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그 10주년을 맞이해 저는 당신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프랑스와 미국 사이에서 어떤 분쟁이 일어나도 서로 대화로 해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에 대해 켈로그 국무장관은 다음과 같은 응답을 내놓았습니다. ‘대찬성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프랑스와 미국, 두 나라에만 한정되고 다른 국가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의 훌륭한 제안은 국제연맹에 가입한 모든 국가에 의해 약속되어야 합니다.’

그 당시의 일본은 다이쇼데모크라시(大正デモクラシー; 1905년부터 1920년대 중반까지, 정치·사회·문화 등의 방면에서 나타난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경향)의 세례를 받아, 대외적으로는 국제협조주의를 주창하고 있었고 국제연맹의 상임이사국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간사(幹事) 역할을 맡아 많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파리부전조약입니다. 1929년의 노벨평화상은 브리앙과 켈로그 두 사람에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시데하라 기주로 외무대신도 최종후보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시데하라 외무대신의 노력은 평가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전조약은 짧은 조약이라 여러분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가맹국은 모든 분쟁을 전쟁 이외의 대화로 해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본국헌법 제9조는 이 부전조약을 거의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따라서 전쟁포기의 발상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평화운동으로서의 '9조항'

20세기는 폭력과 혁명의 세기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뒤편에는 평화를 원하는 움직임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절정을 부전조약이라고 봅니다. 현재 일본국헌법은 전문과 제9조에 파리부전조약의 취지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의 내용은 일본의 독자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세계적인 헌법학자인 오누마 야스아키(大沼保昭)⁹⁾ 도쿄대학교 교수의 지론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의 논리는 현재 제가 품고 있는 생각과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압적으로 일본의 무오류(無謬)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군이 1,000만 이상의 아시아 사람들을 죽였다는 사실은 지워지지 않는다. 한반도와 대만에서 일본이 차별의식을 가지고 식민지 지배를 한 사실도 지워지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들을 부인하는 것은 사실인식으로서 명백히 잘못이다. 이에 관해서는 실증사학연구가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전후 일본이 잘못된 과거를 반성하고 평화주의를 지키며, 세계에서 그 예가 드문 경제적 번영과 안정 위에서 신뢰성 높은 사회와 문화를 창조하여 빈곤한 도상국에 대규모의 경제·기술·의료·보험원조와 지적 협력을 해왔다는 것은 충분히 자랑스럽게 여겨도 되는 사실이다.”

하지만 세계 경찰을 자처하는 미국정부의 호전적 행동방식에 이끌려 이러한 평화주의를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는 일본인도 적지 않습니다. 이들 중에는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가 되자”고 주창하면서 제9조를 바꾸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일본국헌법은 당시의 연합국(즉 당시의 미국)이 일본에게 강제적으로 입힌 옷이며,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제9조이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바꾸자, 새

9) 오누마 야스아키(1946~). 법학자. 전공은 국제법학. 도쿄대학교 교수를 거쳐 2003년 4월부터 메이지대학교(明治大学) 법학부 특임교수로 재직. 1987년 논문 「역사와 문명 속의 경제마찰」(歴史と文明のなかの経済摩擦)과 「경제마찰의 역사적 정의」(経済摩擦の歴史的定位)로 제8회 이시바시 단잔(石橋湛山)상을 수상.

로운 자주헌법을 제정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성 당시부터 자유민주당이 취해 온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위기감을 느낀 사람들이 ‘9조회’를 결성했습니다. 노벨문학상 작가인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¹⁰⁾, 작가인 오다 마코토(小田実)¹¹⁾, 철학자인 쓰루미 슌스케(鶴見俊輔)¹²⁾와 우메하라 다케시(梅原猛)¹³⁾, 미키 다케오(三木武夫)¹⁴⁾ 전 수상의 부인 미키 무쓰코(三木睦子)¹⁵⁾, 작가인 사와치 히사에(澤地久枝)¹⁶⁾, 작가이자 평론가인 가토 슈이치(加藤周一)¹⁷⁾ 그리고 저를 포함한 아홉 명이 발기인이 되어 2004년에 ‘9조회’를 결성했습니다(오다 마코토 씨와 가토 슈이치 씨는 그 사이 안타깝게도 서거하셨습니다). 이 아홉 명이 일본국민에게 “제9조를 잃어버리지 말자”고 호소했습니다.

이것은 오다 씨가 생각한 것이지만, 첫째, “회칙은 만들지 마라. 회칙 때문에 반드시 다투게 된다.” 그리고 “회비를 걷지 마라. 개헌세력은 반드시 자금 수집방

10) 오에 겐자부로(1935~). 작가. 1994년 노벨문학상 수상.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일본주의적 신비주의에 대한 회의감과 전후 일본의 물질주의에 대한 비판을 담은 수상기념 연설문 「애매한 일본의 나(あいまいな日本の私)」가 유명하다. 대표작으로 『사육(飼育, 1958, 아쿠타가와상 수상), 『개인적 체험(個人的な体験, 1964, 신조사문학상 수상), 『만원원년의 풋볼(万延元年のフットボール, 1967, 다니자키상 수상) 등이 있다.

11) 오다 마코토(1932~2007). 작가, 평화운동가. 60년 안보투쟁 때부터 평화운동을 전개. 베트남전쟁 기간 ‘베트남에 평화를! 시민운동(ベトナムに平和を!市民運動, 약칭 ‘ベ平連)’을 결성하여 주도적으로 활약.

12) 쓰루미 슌스케(1922~). 평론가, 철학자, 정치운동가.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해군군속으로 근무. 전후 『사상의 과학(思想の科学)을 창간하고 『공동연구 전향(共同研究轉向) 등 사상사 연구를 전개하였다. 미국의 프래그머티즘을 일본에 소개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오다 마코토와 함께 ‘베헤렌(ベ平連)’의 중심적 인물로 활약하였다.

13) 우메하라 다케시(1925~). 철학자.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 명예교수. 일본사상과 일본고대사에 관한 그의 학문은 흔히 ‘우메하라일본학’이라 불린다. 기본적으로 천황제 지지의 입장을 견지하지만, 배외적 내셔널리즘에 비판적이며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헌법개정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14) 미키 다케오(1907~1988). 정치가. 제66대 내각총리대신(1974~76) 역임.

15) 미키 무쓰코(1917~). 미키 다케오의 부인. 정치적으로는 자유주의자로 분류되며, 특히 북한과의 우호관계에 관심이 많다. 김일성 주석을 만난 마지막 일본인. 남북통일을 지원하는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심포지엄의 발기인, 조일국교촉진국민협회회장이며, 종군위안부에 대한 일본정부의 배상을 촉구하는 운동에도 관여하고 있다.

16) 사와치 히사에(1930~). 논픽션작가. 전쟁에 이른 쇼와사(昭和史)의 실상을 파헤친 논픽션 작품을 다수 집필한 공적으로 2008년 아사히상(朝日賞)을 수상하였다.

17) 가토 슈이치(1919~2008). 평론가. 의학박사. 1947년 일본문학의 ‘정치 우위성’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전후문학의 구상을 전개한 ‘근대문학’ 그룹의 일원. 일본문화의 특징을 ‘집중성’으로 파악한 『집중문화(雑種文化, 1956)는 전후 일본문화론의 대표적 저작으로 간주되고 있다. 1960년 안보투쟁 당시에도 개정 반대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법이나 회계방법에 시비를 걸어 올 것이다.” 세번째로 “회장을 두지 마라. 회장은 저격당할 우려가 있다”. 9조회는 이 ‘회칙 없이, 회비 없이, 회장 없이’라는 깃발을 들고 일본 곳곳을 다니며 호소해 왔습니다. 9조회의 취지에 공감하시는 분은 자기가 사는 곳이나 일터에서 자유롭게 ‘9조회’를 만들어 달라고 말입니다. 우리들의 요청에 호응해서 지난 5년간 전국에 7천 개가 넘는 ‘9조회’가 결성되었습니다. 사람 수로 치면 굉장한 숫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후의 60년간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오에 씨를 필두로 발기인들은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학습회나 강습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도 어딘가에서 ‘9조회’가 하나 더 늘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작은 지구에서 전쟁은 최대의 환경파괴입니다. 그런 짓을 하면 지구가 위험하다기보다는 지구에 의지하고 있는 인간이 위험해진다, 그러니까 서로 사이 좋게 지내자. 이런 생각 하에 서로 손을 맞잡고 인류의 공생을 위해 노력하는 움직임은 실은 수면 밑에서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시간상의 제약으로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만, 비핵무장조약이 그물망처럼 뻗어가면서 현재는 남극, 남반구 그리고 해저가 모두 비핵무장지대가 되어 있습니다. 세계는 다른 눈으로 보면 평화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루쉰(魯迅)이라는 중국문학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나쁘다거나 일본이 나쁘다거나 한국이 나쁘다거나 일반론으로 말하면 반드시 틀린다. 그 나라에는 훌륭한 사람도 있고 아주 나쁜 사람도 있다. 실태는 이러하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의 좋은 생각을 지닌 사람들이 서로를 알고 손을 잡아야 하는 것이다.” 이 루쉰의 말을 끝으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윤킨이_서동주(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HK 연구교수).